

미래 기술 트렌드 분석 보고서

작성일: 2025년 05월 20일

목차

1. 개요	3
2. 상위 AI 트렌드 요약	4
3. 양자 컴퓨팅 상세 분석	5
4. 오픈AI 상세 분석	6
5. AI 클라우드 상세 분석	7
6. 자연어 처리 상세 분석	8
7. 자율주행차량 상세 분석	9
8. 지능형 로봇 상세 분석	10
9. 강화학습 상세 분석	11
10. 의료 AI 상세 분석	12
11. AI 칩 상세 분석	13
12. AIoT 상세 분석	14

1. 개요

본 보고서는 최신 AI 기술 트렌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뉴스 기사와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AI 기술 트렌드를 식별하고, 각 트렌드의 시장 성장성, 기업 채택률, 기술 성숙도, 혁신 잠재력, 지속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기업과 조직이 주목해야 할 AI 기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2. 상위 AI 트렌드 요약

키워드	점수	주요 이유
양자 컴퓨팅	8.6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0년까지 9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Psi퀀텀의 발전과 중국전신의 양자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빠르게 ...
오픈AI	8.2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하며, 이에 대한 시장 성장성과 혁신 잠재력이 매우 높다. 주요 기업인 MS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MS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AI 클라우드	8.2	AI 클라우드는 시장 성장성이 높고,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혁신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지속가능성도 높은 편으로, AI와 클라우드는 미래 기술 트렌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8.0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식음료 페어링 AI 모델은 F&B; 산업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B2B 맞춤형 PB 주류 개발을 위해 상용화 준비 중이며, 기업들의 채택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성숙도는 높으며, 식재료의 맛과 향을 분석해 새로...
자율주행차량	7.8	자율주행차량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며, 중국 우한에서는 이미 활발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들도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의 성숙도는 완벽하지 않다. 혁신 잠재력은 매우 높으며, 이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적 규제로 인...
지능형 로봇	7.8	지능형 로봇 기술은 시장 성장성이 높고, 주요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혁신 잠재력은 매우 높다. 이 기술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강화학습	7.6	뉴스 요약은 '강화학습'이라는 키워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디지털 교육과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디지털 교육 시장의 성장성과 기업들의 채택률은 높게 평가되며, 기술의 성숙도도 점차 향상되...
의료 AI	7.6	의료 AI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 또한, 이 기술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AI 칩	7.6	AI 칩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퀄컴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퀄컴이 이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크게 ...
AIoT	7.4	뉴스 요약에 따르면, A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수도 검침 솔루션 '래피드미터링'이 공개되었고, 이는 검침의 투명성, 정확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시장 성장성과 기술 성숙도, 혁신 잠재력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스탠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3. 양자 컴퓨팅 상세 분석

총점: 8.6/10

2.1 트렌드 요약

인공지능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Psi퀀텀에 투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CEO 젠슨 황이 지난 3월에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Psi퀀텀은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으로, 미국·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몇 년 안에 시카고와 브리즈번에 두 대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Psi퀀텀에 투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지난 1월에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던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지난 3월에는 '엔비디아 가속 양자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Psi퀀텀은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으로, 미국·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몇 년 안에 시카고와 브리즈번에 두 대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전신이 대규모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준비가 된 양자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중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 양자 광역 네트워크를 설치했으며, 허페이 퀀텀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네트워크로, 1147km의 양자 키 분배 광섬유에 걸쳐 8개의 핵심 노드와 159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 현재 약 500개의 정부 기관과 380개의 국유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통신사급 양자 보안 인스턴트 메시징 및 협업 플랫폼인 '퀀텀 시크릿'과 정부 승인, 재무 감사 및 기업 워크플로 관리를 위한 플랫폼인 '퀀텀 클라우드 실'도 공급하고 있다.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11억달러(약 1조5304억원) 규모이지만, 2030년까지 90억달러(약 12조5253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신약 개발 비용을 줄이고, 금융 리스크 모델링,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등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양자 컴퓨팅을 미국 혁신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9
기업 채택률	8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10
지속가능성	9

2.3 분석

양자 컴퓨팅 시장은 2030년까지 9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실리콘 기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Psi퀀텀의 발전과 중국전신의 양자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신약 개발, 금융 리스크 모델링,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을 미국 혁신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선정한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 총평

양자 컴퓨팅은 매우 유망한 기술 트렌드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4. 오픈AI 상세 분석

총점: 8.2/10

2.1 트렌드 요약

마이크로소프트(MS) CEO 사티아 나델라는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에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MS는

대규모 '오픈 에이전틱 웹'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AI가 사용자나 조직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MS는 '오픈 에이전틱 웹'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NLWeb'를 발표했다. 이는 웹사이트나 API를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원하는 AI 모델과 자체 데이터를 연결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나델라 CEO는 앞으로 모든 조직에서 사람과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MS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활용해 다양한 업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5'에서 '오픈 에이전틱 웹'(Open Agentic Web) 시대를 선언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개인, 조직, 팀, 비즈니스 전반에서 의사결정과 작업을 수행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의미한다. MS는 이번 행사에서 깃허브, 애저, AI 파운드리, 윈도 등 주요 개발 플랫폼의 AI 중심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애저 AI 파운드리는 xAI가 개발한 '그록3', '그록3 미니' 모델 등을 포함해 1900개 이상의 AI 모델을 지원한다. 또한,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A2A)과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등 개방형 표준도 도입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엔트라 에이전트 ID'로 에이전트에 고유 ID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개발자의 코딩 작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자사 클라우드에 오픈AI의 xAI의 AI 모델 '그록'을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AI 패권을 둘러싼 빅테크 경쟁 가운데 MS가 개방성을 앞세워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MS는 또한 코딩에 특화된 새 AI 에이전트 '깃허브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에이전트는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해도 AI 에이전트가 전체 코드를 작성한 뒤 사용자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이번 코딩 특화 에이전트는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정조준했다. MS는 또한 기업들이 각 업무에 맞게 자사 AI 앱과 에이전트를 맞춤 설계할 수 있는 '애저 AI 파운드리'에 기존에 사용되던 오픈AI 모델과 함께 xAI의 '그록 3'도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해 AI 에이전트 시대에도 '넘버1' 플랫폼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쟁사가 개발한 AI 규약까지 도입해 AI 개발과 서비스 환경을 MS 생태계 안에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MS는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5'에서 구글 A2A와 앤스로픽 MCP 등 AI 에이전트 통신 규약을 MS 서비스 전반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에이전트를 웹사이트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NL웹(Web)' 표준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는 AI 위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웹 생태계를 MS가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MS는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리더십을 지속하며, 고객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85%의 기업이 다중 AI 모델 전략을 추진 중이다. MS는 '엣지' 웹브라우저에 소형 AI 모델 '파이4 미니' 앱인터페이스(API)를 통합해 텍스트 생성, 요약, 번역 등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윈도우 OS에도 MCP를 적용해 PC와 AI 에이전트 간 접목을 지원하며, AI PC 시대에도 윈도우의 표준 OS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MS는 제품과 플랫폼, 인프라 전반을 통해 AI 에이전트가 개인부터 조직, 모든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작동하는 세상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9
기업 채택률	8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9
지속가능성	8

2.3 분석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하며, 이에 대한 시장 성장성과 혁신 잠재력이 매우 높다. 주요 기업인 MS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MS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4 총평

오픈AI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AI 클라우드 상세 분석

총점: 8.2/10

2.1 트렌드 요약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챗봇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5'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MS는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에서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그록3와 그록3 미니 모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독일의 블랙 포레스트 랩스의 모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애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총 AI 모델 수는 1천900개를 넘었다. MS는 또한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이라는 새로운 AI 코딩 에이전트도 공개했다. 이 에이전트는 간단한 지시만으로 전체 코드를 작성하고 작업이 끝나면 이용자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AI 반도체 협업포럼'이 열렸고,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로보틱스, 대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함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글로벌 AI 판도를 역전시킬 게임체인저로 보고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는 4대 분야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SW, 모듈, AI 모델 등을 풀스택으로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현재 1조원 규모로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빠르면 내년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AI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AI 반도체는 제품에 탑재되어 클라우드와 서버 연결 없이도 AI 추론 연산이 가능하며, 실시간 연산, 높은 보안성, 낮은 네트워크 의존성, 저전력 등이 강점이다. 산업부는 산업 파급효과와 기술 경쟁력 등을 고려해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업종을 우선 지원할 것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1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미소프트(MS)는 AI 에이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하여 워드, 엑셀, 팀즈 등 다양한 자사 업무용 소프트웨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이 서로 다른 출처의 정보를 한 데 모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델맥락프로토콜(MCP) 도입을 발표했다. MCP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도구 등 외부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직접 작업하도록 하는 개방형 표준 프로토콜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AI 모델과 시스템이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했다. MS는 개방성을 무기로 AI 생태계 기반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에 탑재함으로써 제품의 첨단화를 달성하고, 대외 AI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국내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피지컬 AI 시대'를 이끌 주인공들이 우리나라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9
기업 채택률	8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9

지속가능성	8
-------	---

2.3 분석

AI 클라우드는 시장 성장성이 높고,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혁신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지속가능성도 높은 편으로, AI와 클라우드는 미래 기술 트렌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4 총평

AI 클라우드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연어 처리 상세 분석

총점: 8.0/10

2.1 트렌드 요약

AI 기반 F&B; 페어링 전문 기업 '주미당'의 'Flavor Diffusion' 모델이 북미 컴퓨터언어학회(NAAACL 2025)의 AISD 워크숍에 채택되었다. 이 모델은 기존의 관능 테스트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던 식음료 페어링 방식에서 벗어나 화학 성분 기반의 AI 모델을 통해 재료 간 조합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식음료 조합을 발견하고 창의적 레시피 구성이 가능하다. 현재 B2B 맞춤형 PB 주류 개발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매장별 메뉴 특징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류를 제안하는 기술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미당이 개발한 'Flavor Diffusion'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식재료의 맛과 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식 조합을 제안하는 AI 모델이다. 이 모델은 100만 개 이상의 레시피, 약 2만 5000 개 이상의 Flavor DB, 5만 건 이상의 리뷰 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정형 그래프를 구축하고, 화학 구조 예측 레이어를 도입해 페어링 추천의 정확도와 다양성을 확보했다. 현재 B2B 맞춤형 PB 주류 개발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매장별 메뉴 특징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류를 제안하는 기술로 적용될 예정이다. 주미당은 이번 NAAACL 발표를 계기로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Flavor Diffusion을 기반으로 한 제품군과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추가 선보일 계획이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8
기업 채택률	7
기술 성숙도	8
혁신 잠재력	9
지속가능성	8

2.3 분석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식음료 페어링 AI 모델은 F&B; 산업에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B2B 맞춤형 PB 주류 개발을 위해 상용화 준비 중이며, 기업들의 채택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성숙도는 높으며, 식재료의 맛과 향을 분석해 새로운 음식 조합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4 총평

자연어 처리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율주행차량 상세 분석

총점: 7.8/10

2.1 트렌드 요약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차량용 안료의 광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사냉각 및 라이다 탐지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세라믹 안료를 개발했다. 이 안료는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에 주로 쓰이며, 근적외선(NIR) 반사율 60% 이상, 측정 오차 없는 탐지 수준까지 발휘해야 좋은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발된 세라믹 안료는 고상법(Solid-state reaction) 공정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수지와 혼합해 차량 외장에 적용시 복사냉각과 라이다 인식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건축 자재, 자동차, 데이터센터, 야외 전자장비 등 고온 환경에서 열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중국 우한에서는 자율주행차량 서비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뤄보콰이파오는 우한에서 약 400대의 차량을 운행하며, 누적 서비스 건수는 1,000만 건, 총주행 거리는 1억5,000만km에 달한다. 이 회사의 차량은 고가도로 진입, 회전 교차로 통과 등을 능숙하게 해내며,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급출발과 급정거가 적지 않았으며, 앱이 표시하는 서비스 가능 지역과 실제 사용 가능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우한에는 자율주행 관광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평웨상과 무인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통과이디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우한시는 자율주행차량 및 스마트 커넥티드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며, 차량용 칩, 라이다(자율주행용 센서), 고정밀 지도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체들이 도시 내에서 산업 체인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한에는 42개 대학과 56개 국가 및 성급 과학연구기관이 밀집해 있고, 30만 명 이상의 전문기술자와 80만 명 이상의 대학생 등 우수한 인재층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프라와 인재 풀 덕분에 자율주행차량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8년 중국은 법제를 개정하여 포니AI의 로보택시 운영을 허가하였고, 2021년에는 독일과 일본이 무인 자율주행차 허가법과 도로교통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법 규제를 고수하고 있어, 심야에 자율주행 택시가 단 3대뿐인 서울 강남에서도 운전자가 없으면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대통령 주재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자율차 운행 규제가 증가하여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었다. 또한,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라이다(LiDAR)'를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로 간주하여 라이다를 달고 자율주행을 하면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8년에 수정되어 라이다 채택이 합법화되었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각 부처가 역할을 나눠 맡았지만 컨트롤타워는 없는 상황이다. 본문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요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8
기업 채택률	7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9
지속가능성	8

2.3 분석

자율주행차량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며, 중국 우한에서는 이미 활발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들도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의 성숙도는 완벽하지 않다. 혁신 잠재력은 매우 높으며, 이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적 규제에 의해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2.4 총평

자율주행차량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지능형 로봇 상세 분석

총점: 7.8/10

2.1 트렌드 요약

상명대는 지능형 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지능형 4족 보행 로봇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부트캠프에는 7개 대학의 재학생 43명이 참가해 4족 보행 로봇의 구조와 작동 원리, 로봇 운영체제 기반 제어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 화성특례시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AI 박람회 'MARS 2025'에서 세계적 로봇기업 '엔지니어드 아트스(Engineered Arts)'의 대표작 아메카(AMECA)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아메카는 고도화된 얼굴 인식과 정교한 모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 사람과 같은 표정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이다. 상명대학교의 지능형 로봇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 천안캠퍼스에서 개최한 '4족 보행 로봇 부트캠프'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부트캠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한양대 ERICA, 광운대, 국립부경대, 영진전문대, 조선대, 한국공학대 학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4족 보행 로봇의 구조와 작동 원리, 운영 체제에 대한 이론교육과 로봇 운용을 실습했다. 한편, 화성특례시가 주최하는 'MARS 2025'에서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가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이 로봇은 영국의 로봇 전문기업 '엔지니어드 아트스(Engineered Arts)'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고도화된 얼굴 인식 기술과 정밀한 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사람처럼 섬세한 표정과 감정을 구현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가 주최하는 'MARS 2025' 행사에 아메카가 참여하여 국내 첫 공식 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화성특례시의 AI 미래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아마존, 현대자동차, 기아, 신세계, LG U+, 경희대 등 5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AI 기술의 실제 구현 수준을 선보이며, 관람객은 아메카와 직접 대화를 나누며 AI의 진화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통찰을 통해 미래 산업의 흐름과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8
기업 채택률	7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9
지속가능성	8

2.3 분석

지능형 로봇 기술은 시장 성장성이 높고, 주요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혁신 잠재력은 매우 높다. 이 기술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4 총평

지능형 로봇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강화학습 상세 분석

총점: 7.6/10

2.1 트렌드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튜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교사의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관리, 학생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 인재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교원의 서·논술형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튜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교사의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관리, 학생의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로 '디지털튜터' 운영교는 기존 276교에서 476교로 확대된다. 이번 운영교 확대는 기존 학교 단위 선발 방식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정과 강사 선발로 개선해 학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과 지역 인재 활용이 가능해졌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7
기업 채택률	8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8
지속가능성	8

2.3 분석

뉴스 요약은 '강화학습'이라는 키워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디지털 교육과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디지털 교육 시장의 성장성과 기업들의 채택률은 높게 평가되며, 기술의 성숙도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혁신 잠재력과 지속가능성 또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강화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종합 점수는 7.6점으로 평가하였다.

2.4 총평

강화학습은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의료 AI 상세 분석

총점: 7.6/10

2.1 트렌드 요약

코어라인소프트의 AI 소프트웨어 '에이뷰 엘씨에스 플러스(AVIEW LCS Plus)'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병원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옥스퍼드 대학병원의 폐암 검진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성능을 검증하고 폐암 및 흉부질환 조기진단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급으로 코어라인소프트의 의료 AI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향후 세계 각국의 정부주도 프로젝트 및 글로벌 기업향 수주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이미 독일, 프랑스 등에서 정부 주도 폐암 검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병원을 시작으로 영국 내 국민보건서비스 산하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발한 AI 기반 요로결석 진단 보조 기술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어 202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요로결석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업체가 혁신의료기술 사용을 신청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고·접수한 의료기관에서만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판단하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은 진단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AI가 제시한 정보만으로는 요로결석을 최종적으로 확진할 수 없다. 최종 진단은 전문의가 환자의 증상, 소변 검사 결과 등 다른 의학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다. 이 기술은 3년간의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되어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 기간 종료 후 재평가가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나 정식 의료기술 등재 등이 결정된다. LG는 미국 잭슨랩과 알츠하이머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예측 AI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으며, 서울대 교수와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AI 개발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는 LG의 바이오·AI 융합 전략의 일부로, 기업형벤처캐피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원격 의료 기술 기업인 암웰과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에티온,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아드박테라퓨틱 등에 투자하였다. 이와 관련해 LG 회장은 바이오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육성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코어라인소프트는 AI 소프트웨어 'AVIEW LCS Plus'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병원으로부터 공식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 소프트웨어는 폐암 및 흉부질환 조기진단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 용진군 6개 면, 17개 섬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새 병원선 '건강용진호'가 20일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이 병원선은 기존 병원선보다 배 크기가 커져 운항 범위가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5도까지 넓어졌다. 또한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등을 갖추고 있어 섬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병원선은 1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건조되었으며, 최대 44명을 태우고 최고 속도 25노트(46km/h)로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심장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인 '딥카디오 AI 기반 심장 진단 검사기'를 갖추고 있다. 본문에는 '의료 AI'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8
기업 채택률	7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8
지속가능성	8

2.3 분석

의료 AI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다. 또한, 이 기술은

단기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2.4 총평

의료 AI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AI 칩 상세 분석

총점: 7.6/10

2.1 트렌드 요약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AI 칩과 연결되는 데이터센터용 CPU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퀄컴은 2010년대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기반 CPU를 개발하며 테스트까지 진행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을 축소하였다. 퀄컴은 앞으로 개발될 칩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퀄컴은 데이터센터용 CPU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2021년부터 애플 칩 설계자들로 팀을 구성해 해당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 현재 메타와도 이 CPU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데이터센터용 중앙처리장치(CPU) 시장에 다시 진출한다고 밝혔다. 퀄컴은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AI 칩과 연결되는 데이터센터용 CPU를 개발할 계획이다. 퀄컴은 2010년대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 기반 CPU를 개발하다가 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을 축소했다. 퀄컴은 앞으로 개발될 칩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퀄컴은 데이터센터용 CPU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2021년부터 애플 칩 설계자들로 팀을 구성해 해당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 퀄컴이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에 연결되는 맞춤형 데이터센터 중앙처리장치(CPU)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시장 재진출을 선언했다. 이는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퀄컴은 2010년대에 메타플랫폼과 함께 ARM 기반 CPU 개발에 착수했으나 비용 절감과 법적 문제로 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2021년 애플 출신의 칩 설계팀을 인수한 뒤 메타 플랫폼과 데이터 센터용 CPU 개발을 다시 시작했다. 이 회사는 지난 주 사우디아라비아 AI기업인 휴메인과 맞춤형 데이터 센터 CPU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다. 퀄컴이 데이터센터용 CPU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2021년부터 애플 칩 설계자들로 팀을 구성해 해당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 현재 메타와도 이 CPU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퀄컴은 지난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기업 휴메인과 맞춤형 데이터 센터용 CPU 개발을 위한 상호이해각서(LOU)를 체결했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8
기업 채택률	7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8
지속가능성	8

2.3 분석

AI 칩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퀄컴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성숙도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퀄컴이 이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혁신 잠재력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데이터 센터는 장기적인 기술 트렌드이므로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2.4 총평

AI 칩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AIoT 상세 분석

총점: 7.4/10

2.1 트렌드 요약

AI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의 핵심 계열사 MDS인텔리전스와 자회사 스탠스는 '월드IT쇼 2025'에 참가해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 MDS인텔리전스는 A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수도 검침 솔루션 '래피드미터링'을 공개했으며, 이 솔루션은 검침의 투명성, 정확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스탠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공장 자동화 솔루션 기업 이삭엔지니어링과 CCTV 보안전문 회사 아이씨티와 각각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디지털 트윈 사업 전반을 위한 상호 협력과 5G 기반 CCTV 시스템, 디지털 트윈 연계를 통한 새로운 DX 환경 구축 등을 목표로 한다. AI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의 핵심 계열사 MDS인텔리전스는 자회사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스탠스와 함께 '월드IT쇼 2025'에 참가해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전시에서 MDS인텔리전스는 A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수도 검침 솔루션 '래피드미터링'을 공개했으며, 이 솔루션은 검침의 투명성, 정확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스탠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2차례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술 협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본문에는 'AIoT'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2 항목별 평가 점수

평가 항목	점수 (0-10)
시장 성장성	7
기업 채택률	8
기술 성숙도	7
혁신 잠재력	8
지속가능성	7

2.3 분석

뉴스 요약에 따르면, A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수도 검침 솔루션 '래피드미터링'이 공개되었고, 이는 검침의 투명성, 정확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시장 성장성과 기술 성숙도, 혁신 잠재력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스탠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2차례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술 협업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업 채택률과 지속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2.4 총평

AIoT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입니다. 전략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